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영중중 · 관인중 · 관인고 학생 30명에 성금 전달



본지 김종현 조사위원장이 지난 28일 선단4동 444-2번지에 사는 김중복씨를 찾아 성금 10만원과 쌀 20kg 2포대를 전달했다.



본지 최두열 전무이사(가) 영중중학교 학생 5명에게 각각 10만원씩 5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본지 최두열 전무이사(가) 관인고등학교 학생 10명에게 각각 10만원씩 1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지속적인 불우이웃돕기 운동 전개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 어려운 이웃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 19일 11월 제2회 포천민속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자축하는 의미에서 포천신문 운영위원회에서 200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쾌척했다.

지난 28일 오전에 김종현 본지 조사위원장은 포천시 선단4동 444-2번지에 사는 김중복씨를 찾아 성금 10만원과 쌀20kg 2포대를 전달해주고

용기를 잃지 말고 열심히 살 것을 당부했다. 또 29일에는 본지 최두열 전무이사(가) 영중중학교 임혜민(3년), 신민섭(3년), 김성운(3년), 이샘물(3년), 한기형(3년) 학생에게 성금 10만원씩을 각각 전달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우리사회에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관인중학교 박하영(1년), 강민경(1년), 원숙영(2년), 박지은(3년), 김용문(3년) 학생에게 성금 각 10만원씩을 전달하고 열심히 공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관인고등학교 이윤호(1년), 강승구(1년), 김경애(2년), 안재혁(3년), 장상일(3년) 학생에게 각각 성금 10만원씩을 전달하기도 했다. 앞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자동이체로 접수받기로 했다. 자동이체는 월 정기금액을 정해 불우이웃돕기 창구 계좌번호에 자동이체를 링크하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물은 우리의 생명이자 未來’

2005 세계 물의 날 기념식



포천시는 지난 24일 제13회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마쳤다.

포천시는 지난 24일 '제13회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물은 우리의 생명이자 미래'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물 절약과 수자원보호를 생활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포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지역 주민들을 비롯해 박윤국 포천시장과 최대중 포천시의회 의장, 군장병, 학생, 환경단체회원, 각급 기관 관계자 등 모두 1천여 명이 참가해 이루어졌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우리나라도 유엔으로부터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될 만큼, 수자원과 재생 가능한 물의 양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체가 불가능한 수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물 사랑, 물 절약을 실천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포천시에서도 노후수도관 교체와 절수기 설치 확대, 수자원 재활용 제도마련 등 종합적인 물

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평소 물사랑을 실천해 온 수질감시위원과 약수터 및 간이급수시설 관리자, 환경단체 및 군부대 관계자, 유공 공무원 등 모두 11명이 물 관련 유공자로 표창을 받았다.

기념행사 후, 해양구조대 포천시역대대원과 포천시공무원 집수동호회 및 한탄강 잠수동호회 회원 등 30여명은 한탄강 영노고 상단에서 상수원 보호를 위한 수중정화활동을 벌여 물의 날에 의미를 되새겼다.

한편 이날 표창을 받은 물 관련 유공자는 다음과 같다.

- 포천시시장 ▶ 최송학(노곡리 약수터 관리) ▶ 김효수(거사2리 간이급수시설관리) ▶ 정운경(자연보호회 회장)
- 도재민 중령(육군 제5163부대 부대장) ▶ 문영석 소령(육군 제2330부대 지원과장) ▶ 이현진(건설과 직원) ▶ 김경수(문화공보담당관실 직원)
- 포천시의회의의장 ▶ 손완식(도평리 간이급수시설관리) ▶ 박춘길(경기도환경운동본부 포천시지부 부지부장) ▶ 고유환 대위(육군 제2820부대) ▶ 임우재(수도사업소 감침배관공)

지하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연시총회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는 지난 23일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임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시총회를 개최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는 농촌지도 공무원 1인이 1작목 연구모임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결성됐으며 고품질농산물 생산과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현재 27개 작목별 연구모임에 모두 780명이 참가하고 있다.

포천시는 이 가운데 벼, 콩, 인삼, 우리과일, 시설채소, 낙농, 양토, 한우, 포도, 사과 등 활동이 활발한 10개 품목연구회 445명의 회원은 12명의 전문지도사를 통해 중점 지도하고 있다.

이광원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날 총회에서 "농가 경영수준에 맞는 차별화 된 컨설팅을 통

해 농가소득을 뒷받침하며,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촌지도사업에 있어 형식적인 지원을 탈피하고 농업인들이 최대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포천시 농업기술센터는 품목별 연구회를 통해 ▶생산과 경영, 유통에 관한 기술정보 교류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농산물 수요 창출 ▶대형 도매 업체와의 생산·판매 협약 체결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품목별 연구회 임원들은 모범 활동사례 발표를 통해 타 연구회의 장점을 학습했으며,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포천농업 발전에 더욱 매진하기로 했다.

지하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간부회의 운영방법 개선

포천시가 담당 공무원(계장급) 전체가 참여하는 확대 간부회의를 매월 한 차례씩 개최한다.

황용선 부시장의 주재로 지난 21일 포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확대간부회의는 소관업무에 대한 숙지도와 관심을 제고시켜 시정업무 추진에 활력을 기하기 위해 계장급까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하배 기자 94spice@hanmail.net

내고장 장학회 ③ 재단법인 동천장학회 강수동 이사장

抱川 인재양성 위해 장학회 설립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 고정자산 매년 출연 계획

재단법인 동천장학회(이사장 강수동)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장학사업을 실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재단법인 동천장학회는 강수동(71.사진) 삼우석재 회장이 평소 장학사업에 뜻을 갖고 2003년도에 사재 3억원을 출연하여 이사 5명과 감사 2명으로 구성해 같은해 5월10일 경기도교육위원회 허가 2003-4호로 설립됐다.

2003년도 이자수입 1천2백만원과 출연금 1천만 원을 포함하여 2004년도에 처음으로 모두 20명의 학생에게 2천2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지난해에는 다시 기본 자산 2억원을 추가 출연하여 총 5억원의 자산을 갖춘 명실상부한 장학회로 성장 발전하게 되었다.

2005년도에도 관내 중·고등학교교장의 추천을 받아 엄격한 심사 끝에 대학교 진학생 7명과 고등학교 진학생 12명 등 모두 19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대학교 진학생에게는 200만원, 고등학교 진학생에게는 50만원씩 총 2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는 동천장학회 설립동기에 대해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이라며 "배우고 싶어도 돈이 없어 배움의 길을 갈 수 없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장학재단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현재 출자금액으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힘이 되는 데로 자산을 증차하겠다고 한다.

강 이사장이 그동안 일궈온 회사인 삼우석재를 운영하면서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하다가 현재의 위치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주위에 많은 전문가들이 좋은 돌이 나올 수 없는 곳이라는 반대로도 불구하고 3년 동안 핑크빛 돌이 나오더니 4년째부터는 가장 좋은 포천석인 백색 돌이 생산되기 시작했다. 아무도 그곳에서 가장 좋은 돌이 생산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지만 강 이사장에게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생산된 돌은 서초동 대법원을 짓는데 사용되었다고 한다. 서초동 대법원 건물 전체가 포천석으로 건축되었다고 한다.

사업에 대한 확신은 이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게 될 재단법인 동천장학회

설립으로 이어진다. 이제 시작되었으니 삼우석재를 경영하는 사업만큼이나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마다 고정자산을 출연하여 지난 3년전 대수술을 3번이나 했다.

어렵고 큰 수술 후에 건강이 회복되면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다가 장학회 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강 이사장은 "동천장학회를 통해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공동체의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도 개발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강 이사장의 동천장학회 운영계획으로 포천시를 더욱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어가는 사회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동천장학회의 밝은 내일을 읽을 수 있다.

강 이사장은 또 포천메리나가 세상에 빛을 보기 전에 명맥을 유지하던 사람들이 예산이 없어 안타까워 하자 매년 1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경기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밖에도 지역에서 스스로 성장한 예술단체를 육성함으로써 지원하여 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촉매 역할에도 나서 기업메세나 정신을 실천에 나가고 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언제라도 도움을 마다하지 않는 강 이사장이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 동천장학회 설립당시 임원은 다음과 같다.

▶이사장 강수동▶이사 이승우▶이사 이석구▶이사 이규삼▶이사 김진동▶감사 김규돈▶감사 양호식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강수동 재단법인 동천장학회 이사장

동천장학회 2005년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



동천장학회는 2005년도에도 관내 중·고등학교교장의 추천을 받아 19명의 학생들에게 2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43th Fashion Outlet

AD Corp

43번가 패션아울렛

HARRIS TONE

“새로 진입하는 성인층, 다시 젊어지고 싶은 기성세대”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영국적 감성을 지닌 남성과 그의 친구들을 위한 합리적 가격대의 가격지향적인

“모던 브리티쉬 맨스웨어”

◇ 나이키 팩터리 스토어 ◇ 베버리힐스 폴로

◇ 트레비스 ◇ 푸마 ◇ 해리스톤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81-2 Tel.031-541-2390(사) 031-541-4370(매) H.P.011-398-2381 대표 문기태